

영암신학사상연구소, 6월 학술세미나 개최

“김응조 목사의 성서해석, 기독 모형론과 미드라쉬로 조명”

영암신학사상연구소(소장 박정수 교수)는 지난 6월 2일(월) ‘초기 한국성결교회와 김응조 목사의 성서해석: 알레고리 vs ‘기독 모형론’과 미드라쉬’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한동안의 휴지기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재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제1부 예배로 시작되었으며, 성결교단 제104회기 총회장 홍사진 목사가 ‘고난의 유익’(시편 119:71)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어 성결대학교 정희석 총장, 이종숙 명예교수, 영암기년사업회 회장한 목사가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전하며 연구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이어진 제2부 학술세미나는 두 개의 발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발표에서 박정수 교수는 “‘영해(靈解)’, 알레고리인가? ‘기독 모형론’인가?”를 주제로, 초기 한국성결교회와 김응조 목사의 성서해석을 기독 모형론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박 교수는 “초기 성결교회는 성경을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읽으며, 문자적 해석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모형론적 해석을 실천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에도 신학과 삶을 통합하는 해석학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권성식 목사가 ‘신앙을 위한 미드라쉬적 상상력과 성경 해석: 미드라쉬와 영암 김응조의 성경 해석 비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권 목사는 김응조 목사의 성경 해석이 유대 전통의 미드라쉬 해석 체계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특히 ‘석의(할라카 미드라쉬)·영해(학가다 미드라쉬)·실천(강론 미드라쉬)’이라는 삼중 구조를 통해 성경 본문을 오늘날 공동체에 적실한 설교로 전환하는 데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응조 목사의 성경 해석은 알레고리가 아닌 창조의 ‘삶’을 지향하는 창조적 미드라쉬 전통을 재현하면서, 이를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개혁주의 정통성과 구약사 신학의 일관성을 유지한 한국 초기 성결교회 성서 해석학의 귀중한 모델”이라며,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도 여전히 살아 있는 해석학적 통찰을 풍부하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학대학원생을 비롯해 약 120명이 참석했으며,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깊이 있는 토론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초기 성결교회와 김응조 목사의 성서해석 전통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해석과 설교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제3부는 이종숙 목사(코디엘교회 담임, 영암신학사상연구소 운영위원)의 후원으로 마련된 식사 및 교제의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 세대 목회자인 권성식 목사의 발표를 통해 성결신학과 김응조 목사의 신학 사상이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단순한 학술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성경 해석과 목회현장을 창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본지 사장 김종현 장로, 제직세미나 및 간증 집회 인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섬김’(갈 5:22-23) 주제로 진행

본지 사장 김종현 장로(참좋은교회)가 지난 6월 15일(주일) 인천지방회 부평성산교회 ‘2025년도 제직세미나 및 간증 집회’에 강사로 초청되어 세미나를 인도했다. 금번 세미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섬김’(갈 5:22-23)이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제직들이 사명감을 새롭게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강사 김종현 장로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나누며 교회와 담임목사님을 도와 어떻게 섬겼는지 생생하게 전했다. 김 장로는 ‘헌신과 섬김은 성공적인 예배로부터 출발함을 강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겸손과 사랑으로 섬김 때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다’며, “언제나 주님과 연합하고 제직들의 성숙한 섬김으로 담임목사님의 목회를 도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담임 서영원 목사는 은혜롭게 세미나와 간증을 전한 김 장로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우리교회 제직들이 사명의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며 기쁨으로 섬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평성산교회는 1985년 5월 8일 제1대 최용권 목사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2020년 10월 제2대 목사로 서영원 목사

가 부임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지역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교회, 사회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와 전도에 힘을 쏟고 있다.

여교역자 쉼터 새단장 마쳐

성락원 개보수 감사예배 및 교회 설립 등 준비



성락원은 목회지역의 일선에서 은퇴한 여교역자들을 위한 안식처와 복지공간의 필요성에 의해 1952년에 대동되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성락원은 1963년 총회 이후 신생부인회 전국연합회의 헌신과 성락원 운영 이사회의 결의로 수년 동안 세 차례 이전 끝에 새 국면을 맞이하며 1978년 현 소재지 안양시 만안구 안양 8동 563-3번지로 정착하게 되었다. 은퇴 여교역자들의 안식처로서 성락원에 대한 교단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고 또한 신생부인회 전국연합회의 지원과 방문 및 헌신의 손길이 있었다. 개인, 교회, 단체연합회 등의 후원과 성락원 운영 이사회의 모금 활동이 기반이 되었

다. 단층 주택 구조의 성락원은 건물 노후로 2005년 1차 내부개조 및 보수만으로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성락원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노후화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실정이 되었고 교단 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은퇴 여교역자들을 위한 처소와 쉼터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성락원 보수공사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목회자회는 3년 전 유지재단에 청원을 하고, 지금까지 간청하여 오는 중 유지재단(이사장 류제곤 목사, 이사회에서 보수결정)내려졌다. 유지재단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5월 말부터 성락원의 내·외부 보수작

업이 시작되어 여러 섬김과 헌신의 손길(부부수, 이진왕 장로)을 통해 건물의벽

페인트공사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성락원 내부 비품구입에 여러 교회와 기관들이 물질로 비품으로 협조해 주었다.(두란노, 압해중앙, 시흥중앙, 부평성산, 부평남부, 거북한씨성동, 참빛, 토벌, 어진, 은혜, 국선위, 정현숙 목사, 안양지방회, 여목회자회) 김명자 목사(통영수도교회 은퇴)는 성락원 입주가 불가하여 총회 선교관에 1년 6개월을 머무르다가 보수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6월 4일 성락원으로 첫 입주가 이루어졌다. 또한 성락원 내에 성락원교회를 설립하여 건물 외부 십자가를 세우고 내부 예배공간을 확보하여 매주일 은퇴교역자들이 모여 예배하기로 하였다.

성락원은 7월 중 입주감사 및 성락원 교회 설립 감사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성락원은 자체 이사회를 통해 현재 운영에 나가고 있으며(이사장 정현숙 목사, 원장 조명선 목사, 성락원교회 김순이 목사, 이사 13명) 교단의 한 기관으로 여성 은퇴교역자들의 안식처 및 교회로서 계속하여 사역을 힘써 이어 나갈 것이다.

교단 내 교회들과 기관들이 성락원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함께 동행하며 더욱 아름답게 여성의 성락원으로 세워져 나갈 것이다.

(조명선 목사 제공)

송형관 선교사, ‘한인선교사 태국대회’ 이끈다

제26차 인도차이나 반도 한인선교사 태국대회 대화장

태국에서 사역 중인 송형관 선교사가 오는 10월 28일(화)부터 31일(금)까지 3박 4일 동안 태국 방콕 메이플호텔(Maple Hotel)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인도차이나반도 한인선교사 태국대회’에서 대화장을 맡게 됐다.

이번 제26차 대회에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의 한인 선교사 약 7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한인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역의 모습들을 나누며, 선교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에서는 그룹별 맞춤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여성 선교사사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사역 환경 속에서의 실제적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선교 및 목회 경력이 풍부한 명사들의 메시지, 각 분야 전문 강사들의 특강, 선교지에서의 신앙 간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도차이나 지역 선교의 방향성과 전략을 다루는 특별 강의가 포함되어 장기적인 선교 협력과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제38차 하계수련회

주 제 성령의 권능으로 “항상 기뻐하라”(빌 4: 4~5)

일 시 2025. 7. 18(금) 11시 30분 ~ 19(토) 11시

장 소 천안상록리조트 그랜드홀(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576)

모 시 는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성의 모든 목사님들과 남전도회 회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제38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 하계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개최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항상 기뻐하라”(빌 4: 4~5)라는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금번 하계수련회를 통하여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고 성령충만함을 받아 교단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남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17일

남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이장호 장로



홍사진 목사
주천양교회



강명국 목사
늘사랑교회



이병준 목사
심리상담학박사



성태동 목사
비산통교회



이장호 장로
비산통교회

참 석 전국남전도회회원

등록비 6만 원(1인)

신한은행 / 110-251-476370 / 회계 윤장성

연락처 회 장 : 이장호 장로 010-3712-692 4

수령회장 : 차천용 장로 010-5392-7179

총 무 : 오광록 장로 010-5368-3342

서 기 : 나경하 장로 010-5403-5393

회 계 : 윤장성 장로 010-7135-3681

▶ 7월 18일(금) 일정

11:30~14:00	등록 및 점심
14:00~14:50	개회예배 - 홍사진 목사(총회장 / 주천양교회)
14:50~15:50	환영 및 축하
16:00~17:10	세미나 I - 강명국 목사(남전도부정 / 늘사랑교회)
17:10~17:30	간담세미나
17:30~18:30	1차 경품 추첨 / 식사 및 휴식
18:30~20:00	세미나 II - 이병준 목사(심리상담학박사)
20:00~	축소 매점 및 자유시간 / 취침

▶ 7월 19일(토) 일정

07:30~08:20	아침식사
08:20~09:20	파송예배 - 성태동 목사(비산통교회)
09:20~11:00	축구대회 및 2차 경품 추첨
11:00 ~	마무리 귀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전국연합회